

8/28/22

설교 제목: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8 장 1-20 절

- (요 8:1) 예수는 감람 산으로 가시니라
- (요 8: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 (요 8: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 (요 8: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 (요 8: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절관주** 레 20:10
- (요 8:6)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 (요 8: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 (요 8:8)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 (요 8: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 (요 8: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 (요 8: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는 세상의 빛

- (요 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요 8:13)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절관주** 요 5:31

- (요 8: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절관주** 요 13:3, 요 16:28, 요 9:29
- (요 8:15)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 (요 8:16)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 (요 8: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절관주** 신 17:6
- (요 8:18)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 (요 8:19)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절관주** 요 14:7, 요 16:3
- (요 8:20)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유월절에 벧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명을 먹이신 후 그것을 보고 따라온 무리들에게 당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니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후 6 개월이 흘러 초막절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모인 무리들에게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니 당신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음행한 연고로 서기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끌려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여인을 구원해 주신 후 당신이 '세상의 빛'이니 당신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당신의 본질에 대해 하나씩 알려 주시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심을 선포하십니다.

본문은 먼저 음행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손에 끌려 예수님 앞에 나온,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밖에 없었던 한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 앞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요 8: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요 8: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한 여인을 보았으면 그 자리에서 율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이들은 그 여인을 굳이 성전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함입니다.

율법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는데 사랑과 용서를 내세우는 예수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요 8: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만약 예수님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평소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는 당신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 되고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이 여인을 구원해 내십니다.

(요 8:6)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요 8: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요 8:8)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요 8: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땅바닥에 두 번 무엇인가를 쓰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라도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돌아다 볼 수 있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 쓰신 것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어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 모두 자리를 뜨고 여인 혼자 남게 되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당신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 8: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요 8: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다릅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입니다.

죄인인 그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죄를 짓고 끌려온 여인에게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던 여인을 사망에서 구원하신 후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요 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생명, 번영,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만이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당신을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의 여인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의 아들이 되며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어둠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요 12:3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 12: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또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 8:13)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행하신 역사와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 5:36)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 5:3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예수님은 당신이 자신을 위해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은 참되다고 반론하십니다.

(요 8: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에 사람에게 의해 증명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얼핏 보면 율법 조항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지적하십니다.

(요 8:15)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요 8:16)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갈릴리 중에서도 촌 동네인 나사렛 출신이요 목수의 아들로 목수 일을 하고 있는, 정식으로 랍비 교육도 받지 않은 별 볼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지식과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용서로 구원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과 용서로 수가 성 여인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며 그 감격 속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과 용서로 간음하다 붙잡혀 끌려온 여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논증이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율법적 조건에도 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과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요 8: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요 8:18)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두 명의 증언으로도 참되다고 한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일치되는 증언은 더욱 참되고 받아들일 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참 빛'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으나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참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친밀한 교제에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분과 관련해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셨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그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들인 예수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 8:19)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어리석은 판단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통을 가진 자들도 구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긴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의 계속되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이 말씀을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하셨습니다.

헌금함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여인의 뜰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 8:20)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연유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수 밖에 없는 여인과 같은 처지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지은 죄로 인하여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을 감수하며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 생명의 빛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빛을 얻어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을 실천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어야 합니다.

믿는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을 실천하고 살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경건한 백성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앞장 서기를 바랍니다.